

칼빈과 부르너의 기도론 비교

박·해·경

A Comparative Study of Prayer in Calvin and
Brunner

ACTS

I 서론

한철하 박사는 “칼빈과 칼 바르트에 있어서의 기도론의 비교”라는 논문에서 현대신학의 문제점은 교리적 부정확성이나 교리적 오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학들이 내포하고 있는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¹⁾ 이 논문에서 한 박사는 칼빈과 바르트가 기도의 핵심을 “간구”(petition)에 둔으로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²⁾ 하지만 그는 바르트가 기도의 실천 문제에 가면 모든 것을 이미 받았으니 감사만 하면 된다는 식의 기도론을 주장하였고, 기도에 있어서 개인기도의 차원을 무시하고 예식화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간구 해석” “받는” 점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³⁾ 반면 칼빈은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 기도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심이 우리의 경험계에서 실제적인 응답으로 적용되는 기도론을 논하였다고 주장한다.⁴⁾

이와 같은 한 박사의 지적은 현대신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신학의 “개념적 접근법”과⁵⁾ “윤리적 사상화”의 문제점⁶⁾, 즉 불신앙적 접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현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산 신앙”의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칼빈의 성경적이며 실천적인 기도론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르트의 경우에는 기도 “론”(論)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기도해서 살아 계신

1) 한철하, “칼빈과 칼 바르트에 있어서의 기도론의 비교”, 『神學正論』 제 1권, 제 2집 (서울: 도서출판 목양, 1990), 296. 이 논문집은 원래 합동신학교 신학정론 편찬위원회가 날권으로 출간하던 것을 목양사에서 1983년부터 1988년도 분까지 묶어서 다시 출판한 것이다. 따라서 한 박사의 글은 1983년도에 실린 것임을 알린다.

2) Ibid.

3) Ibid., 297.

4) Ibid., 299-300.

5)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길』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95-6.

6) 서양 현대신학의 윤리적 사상화에 대해서는 한철하, “현대신학과 한국 교회의 신앙”, 『한국 기독교와 신앙』 (서울: 풍만출판사, 1988), 207 페이지 이하를 참조바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는 “삶”의 차원이 대단히 미흡하거나 거의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바르트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현대 서양 신학자들이 기독교 진리의 개념들을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도덕적, 사회적 시각에서 논리적 체계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적 차원을 무시하고 있어서 그러한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은 교회의 영광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에서 찾지 못하고, 세속적 성장과 인본주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에밀 부르너(Emil Brunner)의 기도론의 경우는 바르트와 달리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기도와 신앙의 관계, 기도의 실천 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바르트에 비하여 훨씬 더 신앙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선교적 시각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진 것을 본다. 비록 부르너의 신학은 바르트의 것과 마찬가지로 신정통주의(Neo-Orthodoxy) 신학으로서 복음주의 신학과는 입장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그의 기도론에 나타나는 사색의 깊이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의 기도론은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쳐 주며, 현대인이 기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바르트와 달리 신앙적 접근을 하려고 매우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르너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오늘 날 기독교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⁷⁾ 사실 우리도 부르너의 말대로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소망을 온 우주가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 줄 이유가 어디 있는가⁸⁾ 하고 생각하기 쉽다. 태양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수억 년의 우주 속에서 우리의 탄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⁹⁾ 회의를 가질 만하기도 하다. 이런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부르너는 기도의 중요성과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부르너 역시 “실천”면에서 칼빈처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강조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주어진 환경이 곧 응답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

7) Emil Brunner, *Unser Glaube: Eine Christliche Unterweisung* (Leipzig: Gotthelf-Verlag, 1935), 133: “Dass es in der Christenheit so ärmlich zugeht und steht, kommt davon her, dass heutzutage so wenige wirklich wissen, was Beten ist.”

8) Ibid., 126: “Wie sollte sich das Weltall kümmern um deine Wünsche, kleines, dummes Menschenkind?”

9) Ibid.: “Was bedeutet dein Seufzen inmitten dieses Universums, wo die Sonnen in Jahrbillionen werden und vergehen!”

으신 섭리에의 순종과 감사, 찬양을 기도론의 핵심으로 주장함으로써 다시 바르트적인 신정통주의 신학의 변증법적 역설주의(paradox) 논리에 빠지고 있다. 즉 한 편으로는 간구 하여 성령의 오순절적인 역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¹⁰⁾ 다른 한 편으로는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간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다.¹¹⁾ 부르너가 기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론을 신앙적으로 다룬 것은 훌륭하였으나 “기도”란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절대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하나님에게 어떤 상대적인 것을 얻고자 “간구”하는데 있다는 사실이¹²⁾ 그의 기도론에서 힘있게 강조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칼빈과 부르너의 기도론을 비교 연구하고, 양자의 공통적인 강조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자의 장점을 받아들이며, 단점을 보완하여 바른 기도의 신학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많은 기도론들이 있으나¹³⁾ 필자는 칼빈과 부르너에 국한하여 기도의 정의, 근거, 필요성, 기도의 대상, 신앙과의 관계, 기도의 실천 원리와 방법 및 응답에 관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10) Emil Brunner, *Saat und Frucht: Zehn Predigten über Gleichnisse Jesu* (Zürich: Zwingli-Verlag, 1946), 128.

11) Emi. Brunner, *Die Lehre von Der Kirche vom Glauben und von Der Vollendung, Dogmatik III*, (Zürich: Zwingli-Verlag, 1960), 375.

12) 한철하, 297.

13) 기도론으로 중요한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Origen, *On Prayer* in LCC Alexandrian Christiani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5); Tertullian, *Prayer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40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9); F. Heiler, *Das Gebet* (München: Verlag von Ernst Reinhardt, 1920); J. Bunyan, *Prayer* (London: 1965); J. Owen, *A Discourse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London: 1967), Works, vol. 4; J. Murray, *The Heavenly Priestly Activity of Christ* (London: 1958); J. Hastings, *The Doctrine of Prayer* (Edinburgh: 1915); A Murray, *With Christ in the School of Prayer* (Old Tappan: Fleming H. Revell Com., 1974); B. M. Palmer, *Theology of Prayer* (Richmond: 1984); W. R. Spear, *The Theology of Prayer* (Grand Rapids: 1979); T. Tiessen, *Providence and Prayer: How Does God Work in the World?* (Downers Grove: IVP, 2000). 기독교강요 번역자 Battles는 Gregory of Nyssa, Augustine, Hugh of St. Victor의 기도론을 추천한다.

II 기도의 정의

도널드 블러쉬(Donald G. Bloesch)는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심스(Richard Sibbes)를 기념하며 그에게 헌정하는 기도론을 썼는데,¹⁴⁾ 거기서 기도에 대한 오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일반 대중적인 경건에서 자아실현의 한 방법으로 하는 기도, 2) 마술적인 행위로서 기도문이나 어느 구절들을 반복하는 기도, 3) 실용주의와 적극적 사고 운동 및 은사 운동에서 강조하는 자기 필요를 추구하는 기도, 4) 은사 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바 하나님의 능력을 조절하려는 기도, 5) 신비주의가 지향하는 하나님을 자연의 동인(動因)이나 깊음으로 이해하고 합일하려는 기도, 6) 초월주의자들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내적 실존에 대한 목상으로서의 기도, 7) 실존주의에서 하는 바 자기 이해에 치중하고, 자신을 되찾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기도, 8) 세속신학과 정치신학이 주장하는 윤리적 계약의 관점에서 이웃의 필요에 대한 반영이나 자신의 개방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기도, 9) 성서적 사실주의와 개인주의에서 의미하는 환경변화 없는 사람의 변화로서의 기도, 즉 기도를 신비스럽지 않게 하려는 경향, 10) 도덕 재무장 운동에서 하듯 인도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서 주어진 현상자체에 만족하며 일종의 과학적 기도로서 이신론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도 등이다.¹⁵⁾ 블러쉬는 이러한 비 성서적인 기도의 행태를 열거하고 “기도의 위기”라는 제목을 붙였다.¹⁶⁾ 그러나 그도 역시 기도의 신학을 논함에 있어서 “구하여 받는다”라는 본질적인 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중요하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대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자신도 모르게 신정통주의의 특징인 “만남”의 신학에 지배받고 있다. 더구나 블러쉬는 신비주의를 배척하고 “대화와 만남”에 치중하는 부르너식 기도론으로 일관하고 있다.¹⁷⁾

우리가 칼빈과 부르너의 기도론에 들어가기 전에 블러쉬의 기도론을 통해서 기도를 바로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

14) 도널드 G. 블러쉬, 『기도의 신학』 오성춘·권승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5) Ibid., 31-7.

16) Ibid., 27.

17) Ibid., 73-94; 95-170.

신학의 지도급 인사인 블러쉬가 그의 기도 신학을 쓰면서 칼빈의 기도론을 숙지하지 못한 채 신정통주의적 사고에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자신이 전반적으로 복음주의 맥락에서 기도론을 서술하고자 노력하면서도 그 핵심에 있어서는 칼빈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고 신정통주의에 이끌리고 있음을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쉬운 일이다. 즉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어야 하고, 대화이며, 만남이라는 사실을 중시하며,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잘 하였으나 독자로 하여금 신앙을 불러 일으켜 기도하고 싶게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확실히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심”에 대한 그의 신앙적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칼빈은 기도론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이 제목 속에서 우리는 기도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실제적인 신앙관계로서 “구하여 받는 것”이며, “매일의 실천”이라는 신앙적, 목회적 설명을 본다. “기도는 믿음의 주요 단련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유익)를 받는 것이다.”¹⁸⁾ 그래서 빌헬름 니이젤(W. Niesel)은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기도 “론”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주려고 한 것이라 한다.¹⁹⁾ 칼빈은 기도

1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 20의 제목. 기독교강요는 영문의 경우 F. L. Battles역을 사용하고(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라틴 원서는 Petrus Barth-Guilemus Niesel, ed., *Opera Selecta*, vol. IV (München: Chr. Kaiser, 1931)을 사용함. 이후로 기독교강요는 Inst. III. 20. 1과 같이, *Opera Selecta*는 OS IV, 296 식으로 표기함. Inst. III. 20: “Prayer, which is the chief exercise of faith, and by which we daily receive God's benefits.”; OS IV, 296: “De oratione, quae praecipuum est fidei exercitium, et qua Dei beneficia quotidie percipimus.”

19) W.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 H. Knigh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156. 니이젤은 칼빈의 신학 자체가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칼빈의 기도론에 관한 연구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Hans Scholl, *Der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 (Zürich: Zwingli Verlag, 1967); William F. Keesecker, ed., *A Calvin Reader: Reflections on Living*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Elsie Anne McKee, “John Calvin's Teaching on the Lord's Prayer,” in *The Lord's Prayer: Perspectives for Reclaiming Christian Prayer*, ed. Daniel L. Migliore (Grand Rapids: Eerdmans, 1993); A. M. Hunter, *The Teaching of Calvin* (London: Fleming H. Revell Company, 1950); Charles Partee, “Prayer as the Practice of Predestination,” in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8, ed. R. Gamble (New York: Garland, 1992): 357-368; 한철하, “칼빈과 칼 바르트의 기도론의 비교” 각주 1번 참조; Charles Edwards, *Calvin's Devotions and Prayers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54)-한역은 찰스 에드워드펀 『존 칼빈의 경건과 기도』 문석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8).

가 신앙의 영속적인 연습(perpetual exercise of faith)이라고 하였다.²⁰⁾ 그에 의하면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토해내는 것이다.²¹⁾ 참되고 순수한 기도는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적 원리로부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이다.²²⁾

물론 칼빈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며, 기도로서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탄식 등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한다.²³⁾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우선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지려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²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은 사실이며, 칼빈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기도론의 초두부터 곤경에 처한 인간이 구원을 찾고자 한다면 “자기 밖으로 가야하고”(he must go outside himself, extra se exeat oportet)²⁵⁾, 자기 밖의 곳에서(즉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을 “얻어야” 하며(get), 우리의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고(seek), “구해야” 한다(ask)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간청하라, request)고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⁶⁾ 칼빈은 기도를 통하여 보화를 “파낸다”(dig up, effodio)는 표현도 하고 있다.²⁷⁾

칼빈의 기도론의 핵심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혹은 어떤 것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에게 피하며, 그분에게 구하고, 또 얻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첫째 이유를

20) 월레스, 341.

21) 칼빈의 시편 54:6 주석. 이후로는 주석을 인용할 때 시 54:6 식으로 성경장 절만 기록한다.

22) 시 140:6.

23)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 (1537), tr. Paul T. Fuhrman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56: “Prayer is similar to a communication between God and us whereby we expound to him our desires, our joys our sighs, in a word, all the thoughts of our hearts.”

24) Inst., III, 20, 4; OS IV, 300: “Porro rite probeque instituendae orationis esto haec prima lex, ut non aliter quam eos decet qui ad Dei colloquium ingrediuntur, mente animoque compositi simus.”

25) Inst., III, 20, 1.

26) Ibid.

27) Inst., III, 20, 2.

제시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quaerendi*), 사랑하고(*amandi*), 존경하겠다는(*colendi*) 열성적이며 불타는 소원으로 불붙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우리가 모든 곤란한 일(*in every need, in omni necessitate*)을 당할 때마다 거룩한 닷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달려가는(*take refuge in, confugere*)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²⁸⁾ 넷째 번의 이유를 말할 때에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having obtained what we were seeking)라고 하였고, 셋째 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we be prepared to receive)이라고 했으니²⁹⁾ 칼빈의 기도론이 구해서 받는다고 하는 원리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고난 당할 무렵에만 기도하는 일은 불신앙적이고,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감사와 찬양만이 수준이 높은 기도라고 여기고 어지간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교양적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칼빈은 곤란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 행위를 불신앙으로 보며, 하나님께 합당한 존영을 빼앗는 것으로 보았다.³⁰⁾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곤궁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감사와 찬양이 간구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한 이름 속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³¹⁾ 기도는 원래 간구와 간청이지만 간구와 감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사와 찬양이 개념적으로 우리의 삶의 처지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라고 하는 우리 경험계의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선양되며(*the extension of his glory, propagandam eius gloriam*),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게 된다(*setting forth of his name, illustrandum eius nomen*)는 것이다.³²⁾ 바로 이 점이 칼빈이 말하는 기도론의 핵심이며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부르너의 경우에도 물론 기도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임을 명백히 정의하고 있음을 본다.³³⁾ 이것은 그의 만

28) *Inst.*, III. 20, 3; *OS IV*, 298.

29) *Ibid.*

30) *Inst.*, III. 20, 14.

31) *Inst.*, III. 20, 28.

32) *Ibid.*

남의 신학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하나님의 인격성과 인간의 책임성을³⁴⁾ 전제로 하는 “만남”(encounter)과 “대화”(conversation)가 그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부르너가 택한 바 책제목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인격적인 만남(Warheit als Begegnung, The Divine-Human Encounter) 속에서만 알려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 접근해 오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³⁵⁾

부르너는 부버(M. Buber)의 “나와 너”(the I-Thou formula)라는 개념을 기독교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헬라 철학의 객체-주체의 전통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성경적 “하나님-인간”의 인격적 관계성에 그의 신학을 건설하고 있다.³⁶⁾ 부르너는 자유주의에 대해 그것이 주관주의(subjectivism)로서 “인간 중심적”(man-centered)이므로 틀린 것이며, 정통주의는 객관주의(objectivism)로서 “성서 우상 숭배”(the Bible idolatry)에 빠졌기에 잘못되었다고 말한다.³⁷⁾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이 부르너의 근본 사상이다.³⁸⁾

33) Brunner, *Dogmatik* III, 365: “Das Gebet meint Gespräch mit Gott, Anrufung Gottes.” 이후로는 부르너의 교의학 3권을 인용할 때에 BD III, 365로 표기함.

34) E. 부르너, 『에밀 부르너 신학입문』 이원규 역 (서울: 백함출판사, 1973), 82-3: “참 인간성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는 대답할 수 있으며 대답해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피조물이라는데 있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핵심은 책임성(responsibility)이며 그 책임성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것은 그 자신이 영적 관계 즉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운명인 것이다.”

35) J. Robert Nelson, “Emil Brunner” in *A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ians*, ed. Martin E. Marty & Dean C. Peerman (Nashville: Abingdon, 1965), 417.

36) Hugh T. Kerr, ed., *Readings in Christian Thought* (Nashville: Abingdon, 1966), 311: “Brunner felt that the I-Thou formula needed more elaborate doctrinal articulation within Christian framework, ...He did so by making a sharp opposition between the classic Greek philosophical objective-subjective tradition, on the one hand, and the biblical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on the other.”

37) John B. Cobb, Jr., *Living Options in Protestant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2). 이 책의 religion-online page로 표기된 2쪽.

38) Ibid., 3: “Brunner understands faith as the human response to God's revelation of himself in Jesus Christ (Dogmatics I, 61 & 309; Revelation and Reason,

이런 신학의 토대 위에서 부르너의 기도의 정의가 나온다. 기도란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세계로부터 갑자기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³⁹⁾ 기도는 운명과 죽음, 불확실성의 무서운 세계 가운데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과의 보이지 않는 접촉(der unsichtbare Kontakt)이다.⁴⁰⁾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진실한 계시에 대한 응답에 불과한 것이다.⁴¹⁾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기도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겸손한 것이라고 부르너는 말한다.⁴²⁾ 기도는 가장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무능의 선언이요, 우리 생의 양도, 즉 철저하고 무조건적인 양도이다.⁴³⁾ 부르너는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고요와 적막 속에서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도란 먼저 하나님의 현존을 확신하는 것이며, 옛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기도란 만남을 지속시키는 것으로서 부르너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도는 신앙의 자발적인 언어이며, 매우 자연스런 신앙의 행위이다. 기도 속에서 신앙의 해석이 새로워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중점적으로 드러난다.⁴⁵⁾ 신앙의 행위는 “그와 너”(He-you)라고 하는 3인칭 적인 교리적 진술(a doctrinal statement)에서가

32-37). ...In the person of Jesus, God as Person meets man (Dogmatics I, 61; Revelation and Reason, 409). This is the central affirmation of Christianity, and everything hinges upon it. ...God meets or encounters man in Jesus Christ.”

39) Brunner, *Unser Glaube*, 127: “so ist das Beten die Antwort auf die Stimme, die uns aus dem unheimlichen, finsternen Weltall plötzlich entgegentönt in Gottes Wort, in Jesus Christus.” 이후로는 BUG, 127 식으로 표기함.

40) Ibid., 128.

41) Ibid.: “Wirkliches Gebet gibt es nur als Antwort auf wirkliche Offenbarung Gottes.”

42) Ibid., 131: “Beten ist das Kühnste und das Demütigste, was ein Mensch tun kann. ...Das zu glauben und so beten ist wirklich das Kühnste, was ein Mensch tun kann.”

43) Ibid., 132: “Es ist aber auch das Demütigste. ...Gebet ist Ohnmachtserklärung, Gebet ist Lebensübergabe: ...Völlige, unbedingte Abhängigkeit.”

44) Ibid., 133: “Wir müssen erst wieder beten lernen. Man lernt es nur in der Stille und Sammlung. Beten heisst zuerst einmal: der Gegenwart Gottes gewiss sein, oder, wie es die Alten gut sagten: 'vor Gott treten', 'vor sein Angesicht kommen.'”

45) Cobb, 5.

아니라 “당신과 나”(Thou-I)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고백인 것이다.⁴⁶⁾

이와 같이 부르너는 기도를 정의함에 있어서 신앙과 만남이라는 시각에서 논하므로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⁴⁷⁾ 그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 측에서는 “사건으로서의 초월”이고, 하나님의 자기 전달에 있어서는 “초월자의 내재”라고 한다.⁴⁸⁾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언제나 신앙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신앙은 사건이 되고, 기도란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한다.⁴⁹⁾ 따라서 기도는 성화의 한 부분이 아니고 성화의 핵심이다.⁵⁰⁾ 기도는 신앙을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시금석이며, 기도의 신학(기도론)은 모든 신학의 시금석이라고 한다.⁵¹⁾ 부르너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기도 응답에 대한 신앙은 추상적인 비인격적 신 개념에 대한 승리라는 사실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간구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다.⁵²⁾

기도를 정의함에 있어서 칼빈과 부르너는 모두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말하지만 칼빈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간구⁵³⁾하여 응답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

46) Emil Brunner,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Dogmatics I, tr. Olive Wyon (London: Lutterworth, 1949), 38. 이후로는 BD I, 38 등으로 표기함.

47) BD III, 365.

48) Ibid.: “Das Gebet ist, philosophisch ausgedrückt, die 'Transzendenz als Geschehnis' von seiten des Menschen, als Entsprechung der 'Immanenz des Transzendenten' in der Selbstmitteilung Gottes.”

49) Ibid., 364: “Im Gebet wird der Glaube Ereignis. Beten ist Glaube-in-actu, ...”

50) Ibid.: “Das Gebet aber ist nicht nur ein Stück der Heiligung, sondern deren Innerstes.”; 368: “Das Gebet ist, wie wir sagten, das innerste Zentrum der Heiligung, ...”

51) Ibid., 368: “Darum ist das Gebet der Prüfstein des Glaubens und die Theologie des Gebetes der Prüfstein aller Theologie.”; 371: “Eben darum kann das Gebet das Kriterium des Glaubens und die Lehre vom Gebet der Prüfstein aller Theologie sein.”

52) Ibid., 375: “Ja, der Glaube an Gebetserhörung ist der Sieg über den abstrakt-unpersönlichen Gottesgedanken, auch innerhalb der christlichen Theologie. Für den christlichen Glauben ist das Gebet aber nicht in erster Linie Bitte, sondern Lobpreisung, Anbetung und Dank.”

53) 간구가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데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바람. H. H.

였고, 부르너는 인격적 만남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기도의 근거와 필요성

칼빈은 기도의 근거와 기초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둔다. 그의 선택론(예정론)에서 예정 교리의 실천(praxis)이 기도를 촉진시킨다고 하였고,⁵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⁵⁵⁾ 그가 택하신 자(신자)의 기도만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굳건한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 할 수 있는 다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이라고 한다.⁵⁶⁾ 우리는 기도가 성공된다고(응답된다고) 확신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⁷⁾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의 교리도 기도를 촉진시키고, 기도에 용기를 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⁵⁸⁾ 예를 들어 하나님의 불변성(immutability)을 생각하면 기도에 있

Farmer, *The World and God: A Study of Prayer, Providence, and Miracle in Christian Experience* (New York: Harper, 1939), 129: "petition is the most often questioned element of prayer,"; 134: "petition is the heart and center of prayer."

54) Inst., III, 25, 4; OS IV, 416: "Huius doctrinae praxis in precibus quoque vigere debet."

55) 막 9:22; CO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45, 495.

56) Charles Partee, "Prayer as the practice of Predestination," in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ed. R. Gamble, vol 8 (New York: Garland, 1992), 250: "According to Calvin, God does not hear the prayers of sinners but only the prayers of the faithful. Therefore, the children of God must pray with the confidence that their prayers are always heard and answered,"; 요일 5:14; CO 55, 370; 행 8:22; CO 48, 186-7. Hans Scholl은 칼빈의 기도론에서 기도의 근거는 계시이며, 특히 약속과 명령이라고 보았다. Cf. Hans Scholl, *Der Dienst Des Gebetes Nach Johannes Calvin*, 25-38.

57) 롬 10:14; CO 49, 204.

58) Partee, 41-2. 파티는 신론에 있어서의 주요 교리들, 즉 예정, 섭리, 속성 등

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⁵⁹⁾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를 눈앞에 보듯이 경외심을 가지고⁶⁰⁾ 자신을 삼가며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기도의 근거이며,⁶¹⁾ 이 두 가지는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기도의 근거와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교리들은 예정론(구원론), 섭리론, 속성론이 된다. 물론 기독교론, 특히 그리스도의 하늘의 제사장직도 기도론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늘에서 제사장직을 계속하시기 위함 이었고,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중보적인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열납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나 부르너의 기도론에서 이 점은 완전히 빠져 있다.⁶²⁾

칼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즉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보화(caelestes thesauros)와⁶³⁾ 부요(opes)에⁶⁴⁾ 대해 언급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은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부요함과 하늘 나라의 보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⁵⁾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도록 된 것은 없고,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본바 보화들은 기도

을 가지고 칼빈의 기도론을 논하면서 한 마디로 칼빈의 기도론은 결코 신론의(신적 인) 근거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His exposition of the doctrine of prayer never loses sight of its divine basis and therefore never sets the believer's will outside or over against the divine will which governs the world.”

59) Inst., III. 20. 43; OS IV, 355.

60) Inst., I. 2. 2; OS III, 36-7.

61) Inst., III. 20. 13 & 14.

62) 한철하, 303-4. 여기서 한 박사는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한다. 칼빈은 강요 II권 15:6과 16:14-16에서 그리스도의 승귀와 3직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하늘의 제사장직과 승천을 잘 연결하여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에 있어서 승천 교리의 중요성과 유익”(ACTS 박사논문, 1999)을 참조바람. 한 박사는 바르트가 이 문제를 완전히 빼버린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cf. K. Barth, *Church Dogmatics*, IV/1, 314 ff.).

63) Inst., III. 20. 1; OS IV, 297.

64) Inst., III. 20. 2; OS IV, 297.

65) Ibid.

를 통해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⁶⁶⁾ 칼빈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기도의 실천은 얼마나 많은 방면에 유익한 것인가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⁶⁷⁾

그러면서도 칼빈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습성을 길러야 하며, 둘째로,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중심을 그의 앞에 토하여 넘으로써 그를 증인으로 삼는 일을 부끄러워 말아야 하며, 셋째로, 그의 은택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며, 넷째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구한 것을 그의 응답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친절하심을 더 뜨겁게 깨닫게 되고, 다섯째로, 기도함으로써 얻게 된 것들은 기도로서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여섯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실재를 더 확신하게 된다.⁶⁸⁾ 즉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을 펴시어 그에게 속한 자들을 도우시되 다만 빈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즉 “구함-주심”의 공식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고 있다.⁶⁹⁾

따라서 칼빈은 기도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와 그리스도의 하늘의 제사장직을 말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들어가면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해서 받는 은혜의 경험들과 관련시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한편 부르너는 기도의 근거로서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 계시며, 그 분은 세상의 주가 되시며 만물의 통솔자이신데, 우리는 그 분을 부를 수 있고, 그가 들으신다는 사실에다 두고 있다.⁷⁰⁾ “나는 감히 그 분에게 당신(Du)이라고 말할 수 있

66) Ibid.: “Itaque nobis proponi nihil videmus, a Domino expectandum, quod non et precibus iubeamur postulare; adeo verum est, oratione effodi thesauros, quos Evangelio Domini indicatos fides nostra intuita fuerit.”

67) Inst., III. 20. 2; OS IV, 298: “Iam vero quam necessaria sit et quot modis utilis sit precandi exercitatio, nullis verbis satis potest explicari.”

68) Inst., III. 20. 3.

69) 이 부분은 칼빈 강요 III권 20:3에 대한 한철하 박사의(한철하, 앞에서 인용된 글, 300) 요약문인데 그대로 인용하였다. 왜냐하면 칼빈의 말을 정확하게 요약하기가 쉽지 않고, 칼빈의 기도론의 핵심을 “구함-주심”으로 파악한 것은 한 박사의 논문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고, 단지 나의 부름의 메아리만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분으로부터 응답이 온다”⁷¹⁾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부르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위한, 즉 피조물의 자유를 위한 여지를 만들어 주시려고 자기제한(Self-limitation, Selbstbegrenzung)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교통,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려 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아를 수 있다는 근거라고 한다.⁷²⁾ 하나님은 그의 자아 교통(God's Self-communication, seine Selbstmitteilung)을 통해서 참된 대면의 관계성을 창조하신다고 한다.⁷³⁾

그런데 부르너는 기도의 근거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교통의 관계가 가능해진 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즉 영원하신 인격적 로고스가 한 역사적 인격체로서 사람이 되신 것에 정초 된다고 말한다.⁷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기도의 유일한 정당성(Legitimation)과 근거(Begründung)가 되신다.⁷⁵⁾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신 그 대제사장적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기도의 정당성에 대한 유일한 근거가 주어진 것이다.⁷⁶⁾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in the name of Jesus, im Namen Jesu) 라는 말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공식 안에서 우리는 항상 반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근거, 또한 우리 기도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⁷⁷⁾

70) BUG, 127: “Gott ist ja da. ...Es gibt einen Herrn der Welt, einen Lenker aller Dinge; man kann ihn anrufen, er hört.”

71) Ibid.: “Ich darf zu ihm Du sagen, und es kommt nicht bloss ein Echo meines Rufes zu mir zurück, sondern eine Antwort von ihm.”

72) BD III, 373: “Die Selbstmitteilung Gottes wird im Glauben, das heisst in der wirklichen personalen Korrespondenz, zur Kommunikation im wörtlichen Sinn. Gott lässt sich etwas sagen auf Grund dessen, dass er sich uns mitgeteilt hat. Gott schafft durch seine Selbstbegrenzung Raum für die Freiheit des Geschöpfes.”

73) BD III, 373: “Er schafft durch seine Selbstmitteilung ein echtes Gegenüberverhältnis, ...”

74) Ibid., 327.

75) Ibid., 367.

76) Ibid., 368: “Das 'Heiliger Vater' Jesu ist der hohepriesterliche Akt, durch den uns der Weg zum Anrufen des Vaters freigelegt, wird. Zugleich wird der Grund angegeben, auf dem allein unser Gebet rechtmässig ist.”

부르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인간)이 이 교통(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 부르심에 반응하는(응답하는)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운명(목적)이며, 이 부르심이 바로 그의 존재의 근거이다.⁷⁷⁾ 이런 근거에 의해 부르너는 질문하고 대답한다. 현대인이라도 여전히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사실은 가장 세련되고 모든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현대인이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따라서 그도 역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한다.⁷⁹⁾

부르너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인격적 교제에 초점을 두고, 특히 그 가능성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정통주의 신학의 주된 원리이며, 그 점에서는 바르트와 같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칼빈이 그리스도의 하늘의 제사장직에다 우리 기도의 근거를 두는 것과는 달리 부르너는 그리스도의 기도 모범을 우리 기도의 근거로 잡으려 한다는 점에서 칼빈의 기도론과의 주요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르너에게 한 가지 훌륭한 점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오심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현대 교회의 무능력과 가련하게 된 원인이 그는 초대교회의 오순절과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탓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아마 블룸하르트(C. Blumhardt)의 영향인 듯하다. 그는 강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새 오순절(ein neues Pfingsten)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⁸⁰⁾ 그래서 부르너는 말하기

77) Ibid., 369: "Das 'im Namen Jesu' ist darum nicht bloss eine Formel, sondern im Gegenteil die Rekapitulation der ganzen Heilsgeschichte. In dieser 'Formel' erinnern wir uns immer wieder des Grundes, auf dem wir stehen und der Rechtfertigung oder Legitimation unseres Betens."

78) Ibid., 368-9: "Er will auch, dass dieses Geschöpf von dieser Kommunikation Gebrauch macht und ihn anruft. Dem schaffendliebenden Anruf Gottes in Gegenliebe zu antworten, das ist die Schöpfungsbestimmung des Menschen, der in diesem Ruf seinen Wesensgrund hat."

79) BU, 129: "Kann denn ein moderner Mensch noch beten? Dass auch der gebildetste und über alle Technik verfügende moderne Mensch es noch nötig hätte zu beten, ja dass er tief im Herzen drin das Verlangen hat zu beten, darüber kann Zweifel sein."

80) Brunner, *Saat und Frucht*, 128: "Was die Welt jetzt am dringendsten nötig hat, ist ein neues Pfingsten, die Ausgiessung des Heiligen Geistes. ...Ja, das ist das einzige, auf was es jetzt ankäme: ein neues Pfingsten über die ganzen Welt hin."

를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되었으나 가져오는 것은 우리에게(네게) 달렸다고 한다. 우리가 성령을 못 가진 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⁸¹⁾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으나(der das alles ja schon bereit hält, um es zu geben) 받는 일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⁸²⁾ 성령을 가져오는 게(받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⁸³⁾

우리는 부르너의 지적대로 복음사역이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크게 흥왕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생들과 목회자, 선교사들이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도와 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승천 후에 하늘에서 왕좌를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칼빈의 기독교론과⁸⁴⁾ 부르너가 성령의 임하심을 안타깝게 기다리며 기도하자는 기도론은 현대 교회의 영적 위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IV 기도의 대상과 신앙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언급하였다.⁸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부를 때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순수한 본질로 생각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한다.⁸⁶⁾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81) Ibid.: “Es fehlt nicht an Gott, wenn du den Heiligen Geist nicht hast.”

82) Ibid., 129.

83) Ibid.: “So hat uns Gott in Jesus Christus das Heil bereit gemacht, seinen Heiligen Geist will er uns geben durch sein Wort-aber nun müssen wir hin eben selbst holen, und dieses Holen ist das Gebet. Darum ist das Gebet das Wichtigste, was tun können.”

84) Inst., II. 15. 5; 16. 14-16.

85) John Calvin, *Calvin's Ecclesiastical Advice*, tr. Mary Beaty and Benjamin W. Farle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17-19.

말할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언급하는 이유로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와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탁월성이 나타나셨다는 것, 또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아버지가 지정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⁸⁷⁾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의 무한하신 본성에만 머무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위험한데, 그 이유는 인간의 이해력이 그런 일로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를(아버지) 계시하셨기 때문이다.⁸⁸⁾

칼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함이 없이 직접 하나님을 부르든지, 아니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간구하든지간에 중보자 그리스도의 변호가 없다면 기도로써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간다는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⁸⁹⁾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하든지 또는 그리스도께 구하여 우리 기도가 함께 아버지께로 가게 하든지 둘 다 합당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한다.⁹⁰⁾ 따라서 강요 III권 20:1의 “그”가 아버지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따지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⁹¹⁾

이미 삼위일체론에서 칼빈은 신앙의 대상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⁹²⁾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유일하고 단순한 본질로 이해하며, 그 안에서 세 분의 위(persona), 혹은 위격(hypostasis)을 파악한다고 하였다.⁹³⁾ 그리고 신앙론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세히 말하

86) Ibid., 17.

87) Ibid.

88) Ibid.

89) Ibid., 18.

90) Ibid., 19.

91) Inst., III. 20. 1: “But after we have been instructed by faith to recognize that whatever we need and whatever we lack is in God, and in our Lord Jesus Christ, in whom the Father willed all the fullness of his bounty to abide so that we may all draw from it as from an overflowing spring, it remains for us to seek in **him**, and in prayers to ask of **him**, what we have learned to be in **him**.”

92) Inst., I. 13. 16: “Indeed, faith ought not to gaze hither and thither, nor to discourse of various matters, but to look upon the one God, to unite with him, to cleave to him.”

고 있으며,⁹⁴⁾ 유명한 신앙의 정의를 내릴 때에는 삼위일체적으로 하였다.⁹⁵⁾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아버지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긴 하나 때로는 그리스도가 신앙의 목표라고도 한다.⁹⁶⁾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칼빈의 글을 읽을 때 지나치게 아버지 중심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나(바르트, 부르너) 본훤퍼(D. Bonhoeffer) 등은 강력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학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지 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⁷⁾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리울 수가 없다고 한다.⁹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엡 3:12).⁹⁹⁾

그리스도가 기도와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며,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두 가지 사실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도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거절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¹⁰⁰⁾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과¹⁰¹⁾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확실히 응답하신다는 약속이¹⁰²⁾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으로

93) Inst., I. 13. 20.

94) Inst., III. 2. 1: “Indeed, it is true that faith looks to one God. But this must also be added, ‘To know Jesus Christ whom he has sent’ (Jn. 17:3).”

95) Inst., III. 2. 7.

96) Inst., III. 2. 6: “This, then is the true knowledge of Christ, if we receive him as he is offered by the Father: namely, clothed with his gospel. For just as he has been appointed as the goal of our faith, so we cannot take the right road to him unless the gospel goes before us.”

97) 신 21:22-3 설교; CO 27, 700.

98) 사 53:16; CO 37, 402.

99) Inst., III. 20. 12.

100) Inst., III. 20. 17.

101) Inst., III. 20. 13.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부르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 하나님이며,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며,¹⁰³⁾ 또 그는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철학이나 신학에서 “이름 없는 신”은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고 기도를 들을 수 없는 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너는 기도가 신앙과 신학의 시금석이며, 바른 신학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도의 대상에 있어서 “나-당신”의 하나님(einen Ich-Du-Gott)인가 아니면 “이름 없는 절대자”인가(ein namenloses Absolutes)에 달려 있다고 한다.¹⁰⁴⁾ 이런 의미에서 부르너는 불교가 기도를 알지 못하며, 기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⁰⁵⁾ 범신론적 신 개념으로 기울어진 실라이에르마허(F. Schleiermacher)나 하나님을 존재 자체(Being Itself)로 해석하는 티리히(P. Tillich)의 신학도 기도론에서 볼 때 틀린 신학이라는 게 부르너의 판단이다.¹⁰⁶⁾

부르너는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두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불렀으며, 그의 이름에 의해서 그를 감히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도가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¹⁰⁷⁾ 부르너는 그의 교의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이 교리가 계시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이다.¹⁰⁸⁾ 하나님은 오직 그의 이름이 알려진 곳에서만 알 수 있다.¹⁰⁹⁾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자아교통(Self-communication) 안에서만 하

102) Inst., III. 20. 17-20.

103) BUG, 131: “Gott ist der Vater-das heisst eben: er Hört.”; BD III, 370: “Gebet setzt den persönlichen Gott voraus, und der persönliche Gott ist der Gott, der mich anredet, in dem er zu mir sagt: Du bist mein Kind.”

104) BD III, 368.

105) Ibid., 371.

106) Ibid., 368: “Anerkannt ist, dass die Glaubenslehre Schleiermachers, gerade an diesem Kriterium gemessen, nicht bestehen kann. Mit Spannung erwarten wir, was Tillich zum Gebet zu sagen haben wird.”

107) Ibid., 367: “Weil Gott selbst seinen Namen genannt hat, darum und darum allein dürfen wir und können wir das Ungeheure wagen, ihn bei seinem Namen anzurufen.”

108) BD I, 119.

109) Ibid., 120.

나님이심을 뜻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가 인격자이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It가 아닌 Thou이다.¹¹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인격적 교통을 가능하게 하신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¹¹¹⁾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므로 대화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한 인격자가 되셨으며, “예수의 인적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인격적 존재를 드러내셨기에¹¹²⁾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실현되는 것이다.

칼빈이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주로 하나님의 속성과¹¹³⁾ 약속의 말씀을 통한 그분의 뜻을¹¹⁴⁾ 강조하는데 비하여 부르너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한다. 부르너가 만남과 관계의 신학으로 기도문을 말하다보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¹¹⁵⁾ 강조하는데는 칼빈과 같으나 하나님의 속성 일반과 섭리, 선택 등의 교리는 간과하고 지나치게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성의 해설에 치중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도 하나의 만남 신학의 기초 개념으로 사용되다보니¹¹⁶⁾ 실제적인 하늘의 중보 사역이 빠졌으며,¹¹⁷⁾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전에는 마치 비 인격자인 것 같은 의심을 가지게 하며,¹¹⁸⁾ 성자와 성부의 위격적 구별의 모호성도 존재하고 있다.¹¹⁹⁾

부르너는 진리란 만남이며, 만남이 진리라는 공식을 가지고, 신앙이란 유일한 대상인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른다고 한다.¹²⁰⁾ 이렇게 해서 부르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며, 그런 점에

110) Ibid., 121.

111) Ibid., 123-4. 그래서 부르너는 요 17:6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112) BD III, 329.

113) Inst., III. 20. 13.

114) Inst., III. 20. 14 & 50.

115) Brunner, *Saat und Frucht*, 127.

116) Cobb, 8.

117) 바르트의 경우와 같다. 한철하, 304.

118) Cobb, 25.

119) Ibid., 24.

120) Robert L. Reynold, *Brunner's Dialectical Encounter*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7), 19.

서 이교도의 신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고, 철학과 신비주의의 비인격적 합일의 시도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인격인 인격 안에서만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알려지시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고 하여¹²¹⁾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고, 기도론에 있어서 예정론적이며, 구원론적 근거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이 반응할 수 있다는 자연신학적 기초를 가지고¹²²⁾ 만남의 신학을 전개하면서 기도론을 논의 한 것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르트가 말씀의 신학을 세워 신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말씀과 하나님이 인식론을 위한 해석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부르너의 경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나 실제적으로는 일치하여 하나가 되므로 기도가 그리스도라는 작업가설안에 머무르고 마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칼빈과 부르너가 다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신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본다. 칼빈은 기도란 “신앙의 주요 단련이다”(Praecipuum est fidei exercitium)라고 명백히 말한다.¹²³⁾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인도자(guide)로 하여 나온다고 한다.¹²⁴⁾ 올바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다(약 5:15).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 주신다고 하셨다(마 8:13, 9:29; 막 11:24). 기도 응답으로 얻어지는 것은 모두 믿음에 의한 것이다.¹²⁵⁾ 기도으로써 신앙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¹²⁶⁾ 신앙은 즉각적으로 기도로 터져 나오며¹²⁷⁾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발견해 주는 보화들을 캐낸다.¹²⁸⁾ 기

121) BD III, 329.

122) Reymond, 19; 부르너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인간의 반응성(책임성)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다음 참조. Brunner,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and Redemption*, Dogmatics II, tr. Olive Wy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2), 56-7. Brunner, *Man in Revolt: A Christian Anthropology*, tr. Olive Wy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47), 499-515.

123) Inst., III, 20; OS IV, 296.

124) Inst., III, 20. 11 (영역).

125) Ibid.

126) 딤편 2:1-2 설교; CO 53, 125.

127) 마 21:21; CO 45, 585.

128) Inst., III, 20. 1-2.

도는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다.¹²⁹⁾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토해내는 신앙이다.¹³⁰⁾ 그래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며,¹³¹⁾ 의심하는 기도는 속임수에 불과하다.¹³²⁾ 칼빈은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실한 신앙이라고 하였다.¹³³⁾ 기도의 법칙은 신앙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¹³⁴⁾ 신앙의 창시자인 성령¹³⁵⁾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¹³⁶⁾

부르너도 역시 기도와 신앙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앙은 기도로부터 살며, 실상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인 것이다.¹³⁷⁾우리가 참으로 믿는 순간에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에는 신앙 역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¹³⁸⁾ 따라서 기도란 다른 아닌 신앙 그 자체이다.¹³⁹⁾ 부르너는 기도하는 만큼 신앙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만큼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¹⁴⁰⁾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고 믿는

129) 시 54:6; CO 31, 533.

130) 시 91:15; CO 32, 8.

131) 약 1:6; CO 55, 387.

132) 시 140:13; CO 32, 390.

133) 막 9:22; CO 45, 495.

134) 마 21:21; CO 45, 585.

135) Inst., III. 1, 4; OS IV, 5-6.

136) 행 1:14; CO 48, 16. 그런데 칼빈은 요일 3:21 주석에서 신앙의 주요 단련인 기도는(엡 6:18; CO 51, 237)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하면서(CO 55, 344), 신앙의 참된 시험은 기도에 있다고 한다(마 21:21; CO 45, 585).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만 한다고 신앙이 기도보다 앞설 것을 말하면서(약 1:6; CO 55, 387), 펠라기안파의 주장, 즉 기도가 신앙에 앞선다고 하는 말을 비판한다(행 10:4; CO 48, 226).

137) BUG, 128: “Der Glaube lebt vom Beten, ja der Glaube ist eigentlich nichts anderes als: Beten.”

138) Ibid.: “In dem Moment, wo wir wirklich glauben, beten wir schon, und wo das Beten aufhört, da hört auch der Glaube auf.”

139) Ibid., 132: “Darum ist das Beten eigentlich nichts anderes als 'Glauben tun.'”

140) Ibid.

신앙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다.¹⁴¹⁾ 그는 신앙의 내용과 특성은 기도의 실제적인 실천 여부를 통해서 시험되어 진다고¹⁴²⁾ 보았다. 그러므로 부르너는 바르트의 기도론에 비하여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바르트는 기도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함-주심”의 성격이 극히 약화되어 있으나¹⁴³⁾ 부르너는 실제로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의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¹⁴⁴⁾

하지만 부르너는 신앙의 대상에 있어서 교리를 토대로 세워지는 차원보다는 오직 전적으로 한 인격관계, 즉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하여(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이라는 “관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divine-human encounter)이라는 어떤 실존주의적 인류 일반의 필요성에 착안한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시간(경험계)을 건드리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¹⁴⁵⁾ 또 하나의 개념적 접근법에 빠지는 인상을 준다.¹⁴⁶⁾

우리 삶의 경험적인 실재계 혹은 현상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 삶의 경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내심이 되는 신앙 차원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도는 기도답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기도의 대상(하나님)과 우리 신앙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르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애매하게

141) Ibid.: “Im Beten zeigt sich, ob man kühn genug ist zu glauben, dass Gott wirklich der Vater ist.”

142) J. Edward Humphrey, *Emil Brunner* (Waco: Word Books, 1976), 140: “The content and character of faith, Brunner believes, are put to the test in the actual practice of prayer.”

143) 한철하, 307.

144) BD III, 331-5.

145) Reymond, 19-21: “(According to Brunner) Faith, then, can have only one proper object—a Person which ever remains Subject, Jesus Christ. ...faith is wholly a personal relationship. ... The sole object of faith is Jesus Christ, ...the person of Christ. ...Faith is solely our relation to Jesus. ...Like a tangent to a circle, revelation touches time but does not enter it in an extension.”; cf. Brunner, *Revelation and Reason* tr. Olive Wy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46), 36-7.

146) 신정통주의 신학이 교리를 경시하고 만남을 강조하나 메이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허공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배움으로써 신앙을 일으켜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G. Machen, *What is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25), 제 2장 참조.

함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구하고 그에게 머무르게 한다. 칼 바르트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기지량”(known quantity)으로서 인식론 신학을 건설하기 위한 계시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였는데,¹⁴⁷⁾ 부르너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실존주의 “만남”의 신학을 위한 또 하나의 개념적 그리스도가 되기 쉽다.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천상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거룩하게 해 주셔서 실제로 아버지가 받게 하시고 응답도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부르너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성의 설명에 치우치다보니 그 아버지와의 실제적인 교통으로서의 기도론이라기 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서술적 신학으로 머무르고 있다. 거기서 더 전진하여 칼빈이 논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access) 반드시 “연계”되는 신앙의 입체적 논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V 기도의 실천과 응답

칼빈의 기도론의 특징을 단적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무엇을 얻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¹⁴⁸⁾ 칼빈이 강요 III권 20장에서 말하는 기도해야 할 필요성 6가지나 기도의 법칙 4가지가 모두 우리가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공식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¹⁴⁹⁾ 물론 칼빈도 부르너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을 강조한다. 그런데 부르너는 존재론적 필연성에 의한 감사, 찬양을 말하지만¹⁵⁰⁾ 칼빈은 간구에 있어서의 감사를 논한다. 즉, 구하여 받는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가운데 감사가 수반되는 것을¹⁵¹⁾ 말하고 있다.

칼빈은 기도의 실천에 있어서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경외

147)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59-61.

148) 한철하, 300.

149) Ibid., 300-1.

150) BD III, 335.

151) 한철하, 305; Inst., III. 20, 28.

심, 심각한 핍절감과 회개, 통회와 겸손, 응답에 대한 확신의 신앙 등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다.¹⁵²⁾ 특히 하나님을 바르고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육적인 근심과 생각들에서 벗어나(carnibus curis cogitationibusque expedita, quibus a recto puroque Dei intuitu avocari)¹⁵³⁾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순결한 가치에까지 올라가게(ad puritatem Deo dignam assurgat)¹⁵⁴⁾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¹⁵⁵⁾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합당한 기도의 시작이며,¹⁵⁶⁾ 불행과 궁핍과 불결함이 있다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¹⁵⁷⁾ 계속 유지되어야 할 기도의 실천 방법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기도의 실천에 있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잡다한 요구를 함부로 늘어놓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열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 하나님을 순수하고 고결하게 경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⁵⁸⁾

152) 한철하, 301; Inst., III. 20. 4-16.

153) Inst., III. 20. 4; OS IV, 300.

154) Ibid.

155) Inst., III. 20. 6.

156) Inst., III. 20. 9.

157) Inst., III. 20. 12.

158) Inst., III. 20. 16. 칼빈은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다고 한다. OS IV, 321: "Hoc naturaliter indidit Deus hominum mentibus, legitibus non esse preces nisi mentibus sursum sublatis. Hinc ceremonia elevationis manuum, ut ante diximus, quae omnibus seculis et gentibus trita fuit, sicuti adhuc viget." 칼빈은 공중예배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모자를 벗는 것도 허용하였다(Inst., III. 20. 16, note 27; III. 20. 33). 요한복음 주석에서 칼빈은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에 대해 예수님을 모범으로 하여 자세히 부연하였다. 요 17:1의 주석. See J.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r., T. H. 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61), 134: "When John narrates that Christ prayed *lifting up his eyes to heaven* it was a sign of unusual ardour and vehemence. By this attitude, Christ declares that in His mind's affections He was in heaven rather than upon earth, ... by looking toward heaven, He reminds us that God's glory is exalted far above all creatures. The elevation of His hands in prayer has the same significance, for men are

또한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단의 방해와 여러 장애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도 응답이 오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⁵⁹⁾ 즉 칼빈은 기도가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실제적인 마귀의 공격이 있으므로 기도의 실천에 있어서 이에 대비하라고 일러준다.¹⁶⁰⁾

칼빈은 개인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환난 날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고, 모든 장소와 모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라고 한다.¹⁶¹⁾ 또 공중기도에 있어서 많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듯이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기도를 할 것과¹⁶²⁾ 기도에 있어서의 보조수단(장소, 노래 등)을 무시하지 말고,¹⁶³⁾ 일상 언어로 기도하라고 하였다.¹⁶⁴⁾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¹⁶⁵⁾ 인내로서 기도를 계속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⁶⁶⁾

indolent and slow by nature and tend downwards by their earthly spirit and need such arousing or rather carriages to raise them to God.” 기도 시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은 이중의 용도가 있다. 우리 몸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우리의 나태를 일깨우는 것이다[W. F. Keesecker, selected and ed., *A Calvin Reader: Reflections on Living*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23].

159) Ibid.

160) 칼빈의 마귀론에 대해서는 Inst., I. 14. 13-19을 참조. 칼빈은 마귀를 상상이 아닌 실재자로 보며, 그의 두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인간의 구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도 마귀의 목적을 알고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161) Inst., III. 20. 28. 칼빈은 모든 상황에서와 특히 환난의 날에 기도하라고 하였고(시 50:15; CO 31, 163), 죄 사함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필요이므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일이라고 한다(시 119:58; CO 32, 239-40).

162) Inst., III. 20. 29.

163) Ibid. 칼빈은 기도에 대한 열성을 불붙이려고 교회에서 노래하는 것은 가하나 멜로디에 귀를 기울여 가사의 영적 의미에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한다. Inst., III. 20. 32.

164) Inst., III. 20. 33.

165) Inst., III. 20. 50. 칼빈은 기도 시간에 대해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후, 밤에 자기 전을 든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신경을 쓰라고도 하였다(딤후전 2:8 설교).

뿐만 아니라 칼빈은 중보적 기도의 중요성도 역설하였는데, 그리스도인의 중보적 기도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의존하는 것이고, 온 교회의 중보적 기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연결되어 먼저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간다고도 하였다.¹⁶⁷⁾ 신자 상호간의 기도는 이러한 승천의 믿음 외에도 서로 어려움과 짐을 나누는 동안 그들의 사랑을 촉진하는 데도 공헌한다고 칼빈은 생각했다.¹⁶⁸⁾

기도의 응답에 대해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하나님께에 따라야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향존적 요소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곧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¹⁶⁹⁾ 신앙은 주께로부터 무엇이나 얻어내는 데 성공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앙을 아주 높게 평가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언제나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⁰⁾

칼빈은 끈질긴 과부의 비유에서 주님이 교훈 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마침내 얻어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성가시게 괴롭혀야 한다고 하였다.¹⁷¹⁾ 하나님은 기도에 의해 기진맥진하게 되어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고집을 부릴 경우 응락하신다고 한다.¹⁷²⁾ 그러므로 생각이 흐트러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산 신앙으로 지속할 것을 권하고 있다.¹⁷³⁾ 기도할 때에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기도가 힘들어 진다고 느낄수록 더 간절하게 애써야 한다고 하였다.¹⁷⁴⁾

166) Inst., III. 20. 51-2.

167) Inst., III. 20. 19-20.

168) Inst., III. 20. 24.

169) 시 65:3; CO 31, 603.

170) 마 15:28; CO 45, 460: "Fides quidvis impetret a Domino, quia tanti eam aestimat, ut semper paratus sit votis nostris quoad expedit morem gerere."

171) 눅 18:1-8; CO 45, 416.

172) Ibid.

173) 시 89:47-8; CO 31, 829.

174) Inst., III. 20. 5.

그러나 기도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 묶어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방법과 때와 장소 등은 하나님의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우리의 의지를 재갈로 제어하듯 하여 감히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조정하시고, 지시하시도록 하는 일이다.¹⁷⁵⁾

한편 부르너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을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감히 그에게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의 부름은 메아리가 아닌 응답으로 온다고 한다.¹⁷⁶⁾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간구로 응답하자고 한다.¹⁷⁷⁾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가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므로 기도로 아뢰기 전에는 많은 일을 하시지 않고 기다리신다고 한다.¹⁷⁸⁾ 따라서 전에는 가능하지 않던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가능하게 된다.¹⁷⁹⁾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를 피해 달아나고 기도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부르너는 말한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기도한다는 것이다.¹⁸⁰⁾ 부르너는 모든 성실한 행위가 그렇듯 기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내야만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전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감사 전에 기도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⁸¹⁾

부르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적

175) Inst., III. 20. 50; OS IV, 367.

176) BUG, 127.

177) Ibid., 130: "Gott sei Dank, es sind manche, die es hören und fortan antworten im Gebet, mit Loben, Danken und Bitten."

178) Ibid., 131.

179) Ibid.

180) Ibid., 133: "Die meisten fliehen es. Sie haben Angst davor. Wer hätte nicht zuerst Angst davor, mit Gott allein zu sein? Das ist der Grund, warum so wenige Menschen wirklich beten."

181) Ibid., 134.

결단으로 그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유의 대가는 시험에의 노출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시험받았고 기도하셨다.¹⁸²⁾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임이 주님의 기도에서 드러난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만을 바란다면 시험에서 구원받지 못한다.¹⁸³⁾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완전한 고독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실 때 그 승리가 부끄러운 십자가였으며, 그 싸움은 지옥과의 실제적인 전투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견고하게 견디셨다고 부르너는 말한다. 그 기도에 있어서 어떤 사이비 마술도, 신비적 장치도 없었고, 기계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도 없었다. 오직 인격적 대면의 요소만이 주님의 기도의 전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부르너에게는 중요한 점이다.¹⁸⁴⁾

부르너는 기도란 행위를 위한 싸구려 대체물이 아니라고 한다. 또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의 횟수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¹⁸⁵⁾ 오히려 기도할 때 행하시고, 기도하지 않을 때 행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비밀(*das Geheimnis seiner Allmacht*)¹⁸⁶⁾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기도로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데, 이것이 그의 자비의 비밀(*das Geheimnis seiner Barmherzigkeit*)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계시되신 분이다.¹⁸⁷⁾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며, 그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¹⁸⁸⁾ 이것저것을 감사한다고 해서 그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참 감사이다. 바른 찬양과 감사가 없으니 대다수의 기

182) Emil Brunner, *The Great Invitation And Other Sermons*, tr. H. Knigh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5), 160.

183) Ibid., 161.

184) Ibid.

185) Brunner, *Saat und Frucht*, 130.

186) Ibid., 132.

187) Ibid.

188) Ibid.: “Das Gebet ist erstens dies, dass wir wirklich zu Gott treten, dass wir wirklich zu Gott kommen. Ja, das ist sogar am Gebet die Hauptsache. Beten heisst, in Gottes Heiligtum eintreten.”

도가 힘이 없다고 부르너는 지적한다.¹⁸⁹⁾ 최고의 기도는 그 얼굴을 비추게 하시는 것, 즉 우리가 그 분의 곁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개의 도움보다 더한 것이다.¹⁹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도움만 원하는 게 문제다.¹⁹¹⁾ 우리는 하나님의 문 앞에 다가설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다짜고짜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감사하면 간구가 짧아질 수 있다.¹⁹²⁾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주어지면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감사가 제일이라고 부르너는 주장한다.

부르너는 그의 기도의 신학에 대한 설명을 끝내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고 한다.¹⁹³⁾ 특히 기도에 있어서 첫 자리는 간구가 아니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라는 것이다.¹⁹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가 자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한다. 땅에서 최고의 특권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¹⁹⁵⁾ 부르너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응답의 신앙이 추상적, 비인격적 신 개념에 대한 승리라는 사실이다.¹⁹⁶⁾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과 부르너에 있어서 기도의 실천과 응답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여 보았다. 양자가 모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차이점은 칼빈이 구해서 받는 것을 강조한 반면 부르너는 감사, 찬양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다. 물론 바르트에 비해서 부르너는 기도의 실천과 응답에 대해 더 적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르너의 기도론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응답의 사실성을 확인하여 주는 차원에 머무르고 마는 인상이 강하다. 그 이유는 그가 기도의 신학 결론 부분에서 간구보다는 감사를 우선적인 자리에 둬으로써 오순절의 새로운 역사를 오게 하자는 그의 놀라운 제

189) Ibid., 134-5.

190) Ibid., 134: "Wo dass geschieht, da sind wir bei Gott im Gebet, bei ihm selbst und er bei uns-und das ist mehr als alle Hilfe im einzelnen."

191) Ibid., 135.

192) Ibid., 137.

193) BD III, 374.

194) Ibid., 375.

195) Ibid., 376.

196) Ibid., 375: "Ja, der Glaube an Gebetserhörung ist der Sieg über den abstrakt-unpersönlichen Gottesgedanken, auch innerhalb der christlichen Theologie."

안이 무색하게 되었고, 우리가 개개의 도움만을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게 문제라면서 결국 구하여 받는다는 믿음을 일으키기보다는 신자와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의 새로운 실존적 관계로 해설하는 개념적 접근으로 다시 환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환난 날에 주를 부르며, 그에게 달려가며, 구하여 받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성가시게 괴롭히듯이 구한다는 기도론이 중요하다.

VI 결론

칼빈과 부르너의 기도론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인격적 교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도의 본질은 간구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교도의 종교에서처럼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추상적, 초월적 이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들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전능자요, 섭리자며,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따라서 기도론의 근거가 되는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속성, 섭리의 교리 및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다.

칼빈의 기도론이 하나님의 선택과 속성, 섭리, 그의 선의(善意)에 근거하는데 비하여 부르너는 주로 하나님의 명칭(이름)에 집중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그가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와 대화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의 기도론의 출발이다. 칼빈에게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하고, 부르너에게서는 그의 이름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논지가 강한 것을 본다.

칼빈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제사장직을 통한 지속적 중보사역을 우리 기도의 중요 근거로 생각하는데 비하여 부르너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신학을 위한 한 관계성의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기도모범을 가지고 기도론을 세운다. 즉 부르너는 기도론에 있어서 결국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개하는데,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개념적으로 불분명하고, 신자와 신앙, 성부와 성자간의 복음적, 입체적 논의가 없어서 애매하다. 우리가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리스

도를 통해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므로 우리 기도가 허락되고 실제로 응답받게 된다는 복음적 기도론 보다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책임성)으로서의 기도론이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양자가 같지만 칼빈은 산 신앙을 불러 일으키려는 신학으로서의 기도론이고, 부르너는 신-인 간의 만남이라는 “관계” 자체가 신앙화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한 마디로 믿음을 세워주는 신학인가? 아니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새롭게 해석하여 주는 확인의 신학인가? 하는 문제가 발견되는 것이다. 물론 부르너가 새 오순절이 필요하다고 하며, 현대 교회에 성령의 거대한 역사가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적이다. 그는 선교열이 강했고, 목회에 유익이 되는 신학을 하려고 애쓴 학자이므로 그러한 생각을 한 것 같다. 현대 교회가 가난하게 된 것도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칼빈도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으며, 참으로 필요한 것은 줄라대듯이 간구하라고 하였다. 칼빈은 부르너처럼 오순절의 역사를 재현할 만한 기도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선교와 목회, 신학의 목적을 “신앙” 세우는 일에 두고 있으므로 기도를 “신앙의 주요 단련”으로 정의함으로써 기도가 기독교 사역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에게서는 구원론적 근거에 의해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다는 점이 분명한데, 부르너에게서는 어떤 존재론적 필연성에 의한 하나님의 이름 주심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마땅히 감사하라는 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칼빈이 그의 기도론의 논지로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바 “구하여 얻는다”라는 기도론 보다는 찬양과 감사가 기도의 첫 자리라는 부르너의 결론을 볼 때 이것은 기도가 마술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면 안 된다는 그의 강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 같다. 부르너는 기도가 도움만 달라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며 찬양과 감사로 만족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칼빈은 기도론의 기초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하여, 속성 교리와 섭리론, 그리스도의 천상적 제사장직으로 나아갔고, 신자의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 등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실제적인 신앙의 간구와 받아 누리는 기도론을 말하고 있으나 부르너는 계시론적 근거에 의해 기도할 가능성과 감사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기도론으로 종결하고 있다.